

■ 2026 새해설계 문인 광주 북구청장

## “일상·미래 전환…체감되는 변화 만들 것”

골목상권 회복…지역 산업 육성·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의료·돌봄·복지 유기적 연결…예방 중심 안전도시 조성

“2026년은 위기를 견뎌내는 해가 아니라, 준비해 온 변화가 구민의 일상에 서 분명히 체감되는 전환의 해로 만들겠습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민생 회복 △일상 안정 △미래 전환의 세 축을 새해 구정 운영 방향으로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청장이 내세운 올해 시정 기조의 핵심은 ‘민생을 살가끼이에서 해결하는 행정’이다. 지역화폐 ‘부끄마니’는 올해 첫 발행에서 100억원이 단기간에 완판되며 골목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됐다.

북구는 이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카드수수료 지원과 온라인 판로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라이브커머스와 ‘북소e몰’을 확대해 골목에서 시작한 도전이 온라인 시장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전국 최다 수준으로 확대된



골목상권 회복과 함께 상인교류관 구축을 통해 교육과 네트워크, 공동 마케팅이 결합된 지속 가능한 산권으로 육성한다. 중소기업과 지역 산업 육성 역시 단기 지원을 넘어서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에 나선다.

북구는 제품 개발부터 사업화, 국내외 판로 개척까지 전 과정을 연계해 지역 기업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빛반점활 방침이다. 도심 속 스마트 팜 조성은 미래 머거리 산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헬스케어와 연계해 산업 성장의 성과가 생활 돌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로 기운다.

돌봄과 복지는 북구가 가장 공을 들여온 분야다.

의료와 돌봄을 하나로 묶은 북구형 통합돌봄은 전국에서 주목받는 모델로 자리 잡았고, 올해는 이를 한층 고도화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한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함께 총 2120억 원 규모의 도시 침수 예방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반복되는 재난에 흔들리지 않는 도시 기반을 다진다. 동시에 권역별 탄소중립 연합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 단위의 실천을 확산시켜 탄소중립이 구민의 일상이 되도록 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생활권 중심의 문화 확산에 초점을 맞춘다.

광주 차기구 유일의 무동문학상은 지속적으로 육성해 북구만의 문화 정체성으로 기우고, 일곡생활문화센터를 비롯한 생활 SOC는 주민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채워 문화 접근성을 높인다.

게임과 웹툰을 결합한 ‘겜툰 페스티벌’ 확대,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 일상 속 문화·놀이·돌봄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도 이어간다.

미래를 향한 준비도 본격화된다.

북구는 행정 전반에 생성형 AI 활용 기반을 확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와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 밸리 조성으로 연구·산업·청년이 연결되는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청

소년 AI 코딩스쿨 운영을 통해 미래 세대가 기술을 소비하는 데서 나아가 직접 다루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도 힘을 쏟는다.

환경과 공존하는 도시 구상도 중요한 측이다.

군왕봉에서 삼각산을 잇는 장원지맥 생태통로를 조성해 무등산에서 영산강 까지 이어지는 도심 생태 축을 완성하고, 램사르습지인 평두매습지는 생태 보전과 환경 교육의 거점으로 기운다.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과 다회용 기 사용 확대 등 생활 속 실천 기반도 넓힌다.

문인 북구청장은 “올해는 민생과 일상, 미래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구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비롯한 여러 변화의 국면 속에서도 구민의 삶을 행정의 중심에 두고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획은 행정이 세우되, 완성은 구민과 함께 이뤄진다”며 “더 단단한 일상, 더 넓은 미래로 나아가는 북구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지난해 광주·전남 역대 두 번째로 더웠다

#### ■ 광주기상청, 2025 기후분석

연평균기온 15.0도 기록

폭염 32.4일 평년比 4.3배

장마철 역대 두 번째로 짧아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은 기상관측 이래 두 번째로 더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25년 연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연평균기온은 15.0도로 2024년(15.9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월 평균기온은 2월과 5월을 제외하고 모두 평년보다 높았고,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연속 월 평균기온 역대 1~2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여름철 더위가 지속되면서 8월에 평년보다 1.7도가 높은 27.7도를 기록했다.

특히 초가을까지 더위가 이어지면서 연간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는 각각 32.4일, 28.6일로 평년(7.5일, 11.4일) 대비 각각 4.3배, 2.5배 많았다.

북대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빠르게 확장해 6월 중반부터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하며 이른 더위가 시작됐고, 10월까지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습한 공기가 유입돼 높은 기온이 지속됐다. 이처럼 이른 무더위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폭염과 열대야의 주요 기록도 경신됐다.

완도(44일)·장흥(35일)·해남(29일)

·고흥(41일)에서 관측 이래 가장 많은 폭

염일수를 기록했고, 광주(6월19일)·완도(6월20일)·고흥(7월5일) 3개 지점에서 관측 이래 가장 빠른 열대야를 보였다.

연 강수량은 1394.4mm로 평년과 비슷했다. 월별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은 경향을 보였지만, 5·8·10월에는 평년보다 많았다.

장마철 기간(6월19일~7월1일)은 13일로, 역대 두 번째로 짧았다. 광주·전남 강수량과 강수일수는 각각 58.2mm, 4.7일로 평년(338.7mm, 16.9일)보다 적었다.

특히 짧은 지역에서 강하게 내리는 특징을 보이며, 7~8월에 광주·남구(80.0mm), 나주시(92.0mm), 무안공항(142.1mm), 함평군(147.5mm) 등 13개 지점에서 1시간간 최대강수량이 80mm를 넘었다.

북서쪽의 차고 건조한 상층 기압골이 자주 남하하면서 9~10월에는 잦은 비가 내렸다.

9월7일에는 전남 곡성 석곡면(50.5mm), 광양시(50.0mm)에서 1시간간 최대강수량이 50mm를 넘는 등 강수가 좁은 구역에서 단시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북서쪽의 차고 건조한 상층 기압골이 자주 남하하면서 9~10월에는 잦은 비가 내렸다.

9월7일에는 전남 곡성 석곡면(50.5mm), 광양시(50.0mm)에서 1시간간 최대강수량이 50mm를 넘는 등 강수가 좁은 구역에서 단시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10월에는 하층에서 저기압이 통과(3~4일, 6~7일, 13~14일, 15~16일, 17~18일)하며 비가 자주 내렸다.

정현숙 광주지방기상청장은 “2025년은 연평균기온 역대 2위 짧은 장마철과 6월의 이른 폭염, 여름철 폭염과 호우 반복 등 이례적인 기후현상을 반복하게 체감한 해였다”고 밝혔다.

승태영 기자 sty123@gwangnam.co.kr

‘30년 우정’ 대학동기에 56억대 사기친 50대

30년 넘게 알고 지낸 대학 동기를 상대로 56억원이 넘는 차용 사기를 벌인 5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 기종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토지·상가 매입·주택 청약·경매 자금을 빌려 주변 투자 수익으로 갚겠다며 거듭 대학동기인 B씨를 속여 총 56억9200여만원을 요구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광주 서구 신년인사회 6일 오후 광주 서구청 드볼홀에서 열린 ‘2026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김이강 서구청장과 유관기관장, 사회·지역단체장, 주민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서구는 기존의 내빈 중심 행사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무대에 올라 ‘서구를 바꾸는 시간 15분’을 통해 서구의 변화를 직접 전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광주·전남 나눔 한파에 사랑의 온도탑 ‘꽁꽁’

개인 기부 급감 속 법인도 정체…작년比 하락세 뚜렷

경기 침체·기부 피로 겹쳐…6년 연속 목표 달성 난망

연말연시 소외 이웃을 위한 ‘희망 2026 나눔캠페인’이 반환점을 돌았지만, 광주·전남의 사랑의 온도탑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와 함께 부담된 재난 특별모금으로 인한 기부 피로가 겹쳐 6년 연속 목표 달성을 비슷하게 저울이 쳐졌다.

6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 기준 광주지역 모금액은 41억5165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81.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점(44억126만원·86.0%)보다 약 2억4900만원 줄어든 수치다.

기부 주체별로 보면 개인 참여 감소가 두드러진다. 광주의 개인 기부액은 16억 825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4400만원에 이르렀지만, 참여 인원도 1만9815명에서 1만4181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법인 기부는 24억6910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체 모금 감소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전남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5일 오전 10시 기준 전남 모금액은 83억707만원으로

로, 목표 대비 72.9%에 머물렀다. 지난해 같은 시점(93억6999만원·82.2%)과 비교하면 10억원 이상 감소한 수치다. 전남 역시 개인 기부 위축이 뚜렷하다. 개인 기부액은 34억9854만원으로 전년보다 줄었고, 참여 인원은 2만7487명에서 2만1440명으로 6000명 이상 감소했다. 법인 기부도 57억5633만원에서 48억852만원으로 줄어 모금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광주·전남은 2020년 이후 5년 연속 연말나눔캠페인 목표를 달성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반환점을 지난 현재까지 모금 속도가 예년보다 느려 목표 달성을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 경제계는 이번 모금 둔화의 배경으로 산업 경기 침체를 꼽는다. 특히 여수·광양신안단 등 부진이 지역 경제 전반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로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법인 기부 여력도 줄었고, 물가·금리 상승과 취업난은 개인의 나눔 참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계속된 재난 특별모금도 변수로 작용했

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다. 또 산불과 집중호우 등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모금이 여러 차례 진행되면서, ‘기부 피로감’이 반환점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랑의 열매 관계자는 “기부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경제 여건 악화로 참여 시점과 규모가 분산되고 있다”며 “캠페인 종료까지 남은 기간 동안 기업과 개인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모금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오늘의 날씨

해뜰 07:42 일몰 21:54  
하계 17:36 일몰 10:22



광주	1~7
복지	2~7
여수	2~8
순천	0~8
구례	-1~7
광주	-1~8
완도	1~9
목포	5~8
고흥	-2~9
진도	3~8

● 미세먼지 낮아요!

● 6일 한밤중 도심 한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30분 광주 중흥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왜 안 파느냐”며 고성을 지르고 소리를 피우다 손님들을 내쫓은 혐의를 받아.

조사 결과 A씨는 식당 주인이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경제 퇴장에 격분한 A씨는 약 3시간 뒤 다음 날 0시50분 같은 식당을 다시 찾았지만 2차 난동까지 벌이는 집요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로 재판을 받는 중인 점과 재발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 신청했고,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 임영진